

삶의 힌트

이즈키 히로유키 (일본 소설가)

〈3〉 사랑하다

“사랑에 대한 보답 없다고 화내지 마세요”

지금은 사어(死語)가 된 말 중에 ‘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도라니 또 고리타분한 화제를 끄집어내다고 쓴 웃음을 짓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도덕이나 인의(人義)같은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도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어느 젊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것을 문득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30대 후반에 막 접어든 그녀는 명랑하고 건강한, 결혼하기 전에는 스키선수로 활약한 스포츠우먼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출산한 것은 1년쯤 전의 일입니다.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로 상상하고 힘이 센 타입인데, 결혼 초기에는 두 사람 모두 “아이는 갖고 싶지 않아”라고 임버릇처럼 말하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눈을 뜨게 뜨고 이렇게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효도 같은 거, 난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어째서?” 의외라는 표정으로 남편이 묻자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죽을만큼 힘들었지만, 기쁜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 앞으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더 행복한 기분이 들지도 몰라. 당신도 평소에는 신경질적인 얼굴을 하다가도, 아이 얼굴만 보면 흐리멍덩해지는 자식 바보가 다 됐잖아. 면허증 넣는 데다 아이 사진을 넣어 갖고 다닐 정도면서, 이 아이 덕분에 얼마나 삶의 보람을 느꼈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야. 생각해보면 부모들의 인생의 한때에 이렇게 반짝이는 충실한 시간을 줬으니까, 더 이상 이런저런 바람을 갖는 건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아이는 태어나서 4~5년 동안은 부모에게 멋진 선물이 되어주는 것 같아. 어차피 중학생 정도가 되면 우리 같은 건 무시하고 멋대로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커서 뭔가를 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내 욕심인 것 같아. 사람은 어린 시절에 120퍼센트 부모에게 삶의 기쁨을 선사해주니까 나중에 효도 같은 건 안 해도 돼. 이상한가, 이런 생각?” “기쁨도 있지만, 고생도 많이 하잖아.” 남편이 말하자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거봐.”

두 사람은 그 후로 토론을 계속했는데, 저는 그녀의 말이 어떤 의미에서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낯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상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라고 고개를 젓는 분이 계시지도 모릅니다. 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론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약간의 육아 경험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패전을 맞이한 직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열세 살이었던 제가 남동생과 여동생을 보살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는 어른의 수감자야 족쇄일 뿐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굶주림 앞에서는 사라져 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굶주린 어른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진저리를 칠 만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 때 ‘이기적 유전자’라는 테마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구하려고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차에 뛰어드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를 지키려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유전자야말로 생명의 주인공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탈 것에 불과하다는 유니크한 설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그래도, 이를 뛰어넘기 위해 사상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 불교는 ‘자비’라는 사고방식을 통해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의 탈것에서, 한 차원 다른 존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생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든가 사상, 지성과 같은 것은 모두 탈것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반항 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유전자가 인간의 주역이라면 그 유전자를 주고받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타인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훨씬 무거울 것입니다. 바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로 연결된 부모나 자식보다 타인이었던 남편과 아내, 애인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사상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라는 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듯합니다.

고대의 부족들은 피로 연결된 이들과의 균락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한 마을의 일원은 모두가 친척이라고 해도 좋을 관계였습니다. 유전자들 공유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이좋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시라는 새로운 거대 공동체가 나타나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인종도 언어도 풍습도 유전자도 제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피로 연결된 그룹이 다른 그룹과 공존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연히 새로운 공생의 사상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이 ‘사랑’, 혹은 ‘자’의 사상이었던 게 아닐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불교에서 말하는 ‘자=메타’라는 말은 ‘우정=프렌드십’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요컨대 피로 연결되지 않은 상대방과 어떻게 공존하며 사이좋게 지낼까, 라는 발상입니다.

여기에 바로 종교의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에는 본래 반지성적인 것과 동시에 지성적인 것도 크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적인 것을 과학, 반지성적인 것을 종교라고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종교도 과학도 원래는 지금보다는 훨씬 조약하고 수상쩍은 것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것이 세련되어지고, 형태가 갖춰지고, 순수화되고, 그리고 메탈라 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이 벗겨지고, 고급화된 만큼 가난해진다. 모든 문화는 그런 운명을 겪어가는 듯합니다. 연극도 음악도 차도 문에도 모두 그러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체적 행위가 자기 멋대로 한 행동임을 마음에 새겨야 효도 역시 자식에게 요구하는게 아니듯

일전에 폴란드로 향하던 도중 아주 짧은 시간, 빈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마침 토요일이라 빈 중심가에 곳곳에서 거리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온 그룹도 있고, 블루스 연주나 플루트 독주자, 코러스 3인조, 백파이프를 불고 있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집시 남자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음악이 거리의 소음과 혼연일체가 된 길을 걸으면서 저는 ‘아아, 음악이 살아 있다는 건 이런 상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콘서트홀에서 듣는 연주도 멋지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전자 소리, 바람 소리, 교회의 종소리 같은 잡음 속에서 들려오는 음악에는 어쩐지 인간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십우도(十牛圖)라는 그림으로 종교 사상을 설화한 오래된 에마키(이야기나 전설 등을 그림으로 그린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십우도의 마지막 그림에는 명경지수(明鏡止水)의 경지를 깨우친 이가 시중의 혼잡한 거리를 술병을 들고 휘청휘청 걷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입전수수(入塵垂手)’라는 글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전’이라는 것은 시정을 가리키는 말로, 속세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수행 끝에 종교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산중에 홀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깨달은 후에는 속세에 뒤섞여 살아가는 게 궁극적인 깨달음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사랑한다’는 것 역시 혈연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그다지 멋진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멀리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인간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때로는 구아나나, 비단뱀을 사랑해 마지않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동차나 총기를 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술 애호가 중에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애정을 쏟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성끼리의 사랑을 연상하기 쉬운데, 사랑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라 동성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전자의 교환을 의도한 사랑이 아닌 만큼 이쪽이 한결 ‘자’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인류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 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자기애와 본능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칭하고, 인류애와 적마져 사랑하는 신과 같은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상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굳이 큰 소리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보시행’에 대해 쓴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좋은 보시를 한 쪽에 좋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보시를 하는 쪽이 이득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를 할 때는 보시를 한 쪽이 합당하고 예를 표해야 합니다. 공덕을 쌓는 수행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보시를 받은 쪽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인도에서 관광객이 거지에게 돈을 건네고, 문득 위화감을 느끼곤 하는 게 그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서도 고맙다는 감사의 말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가는 상대에게 당혹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합당하고 머리 숙이는 게 예의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사랑 역시 이쪽이 멋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응할까, 하는 것은 일단 처음부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알고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게 인정(人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사랑받기를 바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만큼 진지하게 사랑을 ‘주었으니까’라는 사고방식은 언젠가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지 않을까요.

상대가 거기에 충분히 응해주지 않는다, 또 성의를 표하지 않는다, 배신당했다는 식으로 우리는 멋대로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자신들이 멋대로 결정한 일입니다. 아이가 간절히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는 다양한 기쁨과 감동, 그리고 삶의 보람을 부모에게 선물합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시치고산을 하는 것도 부모의 만족감 때문입니다. 8미리 비디오키메라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멋대로 저지른 행위에 보답을 바라는 건 이상하다는 게 앞서 소개한 젊은 엄마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함장하고, 그 이상의 효도 같은 건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멋대로 한 행동이라고 반복해서 스스로를 타이르며, 사랑의 보답이 없을 때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역시 좀처럼 그렇게는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쪽으로 변하는가, 좋은 쪽으로 변하는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만일 기적적으로 사랑하는 상대에게서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인간이 늙어가는 것처럼 사랑 또한 변해갑니다. 한쪽이 변하지 않아도 다른 한쪽이 변할지도 모릅니다.

‘효도’ 역시 자식을 통해 한순간이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이상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의 사랑, 결혼 초기의 사랑, 10년이 지났을 때의 사랑, 25년이 지난 후의 사랑, 또 50년 이상이나 함께 살아온 사랑의 모습은 결코 같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것이 있고, 깊어지는 것이 있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멋대로 하는 것임을 마음에 단단히 새겨두는 겸허함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도’ 역시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듯 말입니다.

정리=이냐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이즈키 히로유키가 쓴 <삶의 힌트>(지식연행)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붓다북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